

TV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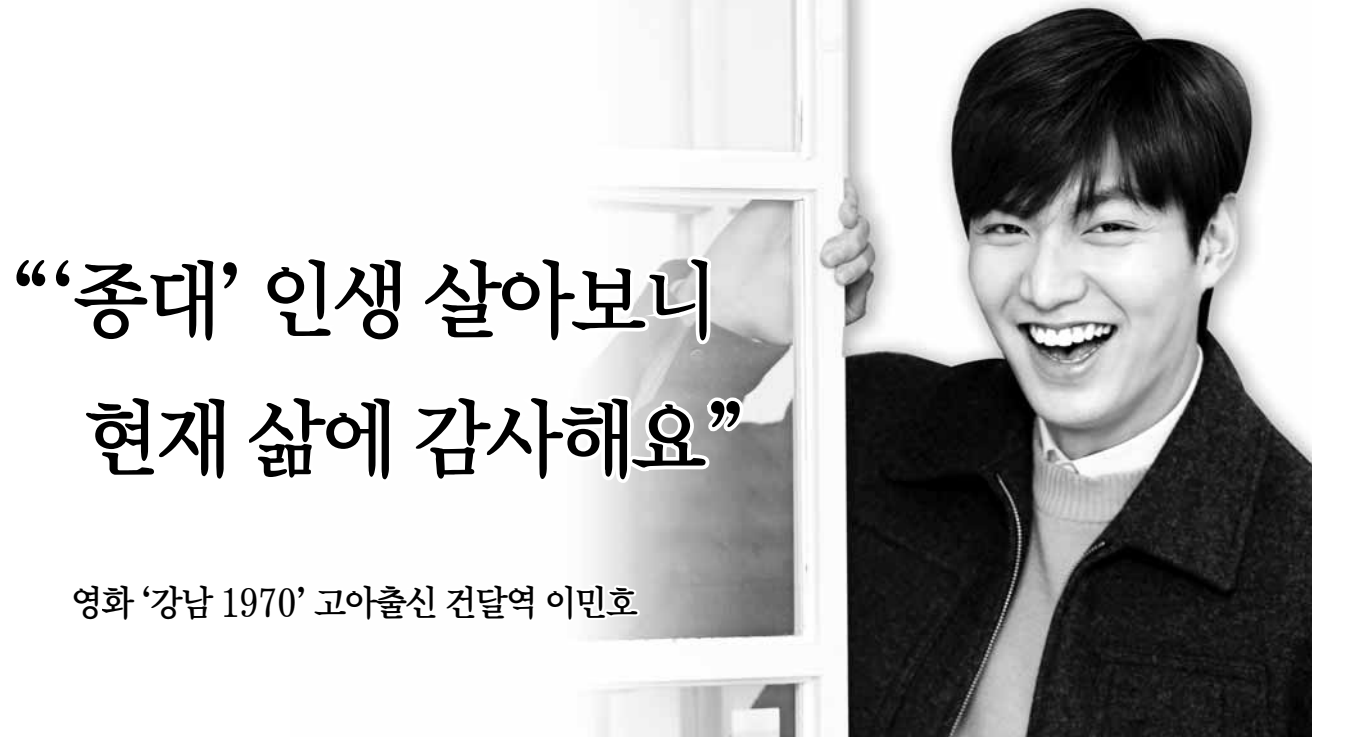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s.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and their daily forecasts.



“‘종대’ 인생 살아보니 현재 삶에 감사해요”

영화 ‘강남 1970’ 고아출신 건달역 이민호

“‘종대’라는 인물을 통해 이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와 ‘상속자들’ 등을 통해 한류 스타로 부상한 이민호(28·사진). 재벌 2세의 이미지로 각인된 그가 이번에는 남자를 주우며 연명해야 하는 밑바닥 생활로 내려왔다.
이민호는 오는 21일 개봉하는 유하 감독의 신작 ‘강남 1970’에서 주인공 ‘김종대’ 역을 맡았다. 그의 첫 스크린 주연작이다.
이민호는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 ‘저릴 때가 있었지’라며 좋게 추억할 수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런 쓸쓸함을 통해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화는 1970년대 강남 개발이 막 시작되던 시절, 강남의 땅을 둘러싼 이권다툼에 휘말린 두 청춘의 이야기. 극 중 종대는 같은 고아원 출신인 용기(김래원 분)와 남매자이 생활을 하던 유일한 안식처였던 판자촌이 철거되고 우연히 전담대회를 망치러 가는 건달패에 끼면서 인생의 변화를 겪는다.
“당시에는 그런 힘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던 지금 세대에는 조금 더 많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일도 있죠. 20대에 그 그런 감사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민호는 “제가 현대의 강남 남자 느낌이 물씬 나는 배우인데 아무것도 없는 강남에 들어가서 연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대중이 호기심 있게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영화는 “권력이 폭력을 소비하는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아무래도 꽤 폭력적이다. 거친 액션이 난무하고 곳곳에서 피가 튀는다.
이민호는 “기준에는 달달한 연기만 했다면 또다른 모습을 내비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했다.
유하 감독은 최근 언론 시사회 후 한 간담회에서 “아무래도 ‘폭력 3부작’을 표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강도가 셀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면서 “70년대가 폭력적인 시대이다 보니 폭력성을 배우들에게 좀 더 투영해서 찍은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있다.
이민호는 “감독님은 의식주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고 나도 영화를 찍으면서 한 번도 누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다.
“원래 저는 남성성이 더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로 맨스나 멜로물을 보기보다 누아르 장르를 찾아보곤 했거든요. 영화를 찍으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제 마음도 피폐해진 건 사실이에요. 영화를 하면서 솔직히 예전보다 주변에 화도 많이 낸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순화했는데 이번에는 옛날 날 것의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민호도 ‘꽃보다 남자’로 인기를 얻기 전에 무명 시절을 겪었다. 20살 때는 큰 사고를 당해 1년간 침대 위에서만 지내기도 했다.
“그때 침대에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후로도 ‘꽃보다 남자’ 전까지 물질적으로나 상황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종대처럼 치열한 상황은 아니지만 막막함을 느끼거나 빨리 이상향을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민호는 “영화에서 튀지 않고 그 캐릭터로 잘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공했다고 본다”며 “기존 이미지와 다른 지점이 어색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설득력 있게만 다가간다면 첫 주연 영화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공한 게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영화 촬영을 마치고 나니 꼭 70년대를 갔다 온 느낌이에요. 마음 한편에 쓸쓸함과 처연함이 같이 있으면서 마치 하나의 추억처럼 느껴져요.”
그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완전히 풀어지는 역할을 20대가 가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렇다고 재벌 2세 역할을 안 할 계획은 아니라고 한다.
“드라마에서 부잣집 소제가 빠질 수 없죠.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또 부잣집(아들) 역할을 할 수도 있겠어요.”



클라라 “사형 판정 받은 느낌”

계약 분쟁·성희롱 진실 공방 중 억울함 호소

방송인 클라라(사진)가 최근 소속사 P사와의 분쟁에 대해 20일 “정식 재판을 시작하고도 전에 언론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 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이날 소속사 ‘코리아클라라’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호소하며 “대한민국 법에 보장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는 P사와의 전속 계약 분쟁이 성희롱 여부 등을 놓고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전날 한 연예매체가 클라라가 P사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해 여론이 클라라에게 부정적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클라라는 수영복·속옷 사진까지 회장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알’을 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같이 일 할 회장에게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확인을 받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클라라는 “회장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밤 12시 남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선하고 설?’다. ‘와인 마시다 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등의 카톡 등을 보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김장훈 “무조건 죄송합니다”

기내 흡연 적발...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가수 김장훈(사진)이 비행기 내 흡연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된 데 대해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며 사죄했다.
김장훈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잡혀 있던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며 “참여할 수 없을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또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방에서 경찰 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 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빠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 속에서도 묻혀버렸습니다”라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지검은 김장훈이 지난날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화장실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됐으며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